



2023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4년 연속 1위
LG 트롬

LG 트롬 | Objet Collection

쓸수록 새로워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주는 LG 트롬

LG전자는 1969년 국내 최초 백조 세탁기로 기계로 빨래하는 시대를 열었다.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드럼과 통돌이, 두 개의 세탁기를 결합한 세탁기 LG 트롬 트윈워시를 출시하여 동시 세탁과 분리 세탁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2020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진 국내 최초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했다. 2022년 이후부터는 UP가전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계속 새롭게 사용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고객 니즈 반영해 혁신 거듭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세탁기를 출시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탁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다. 백조 세탁기를 시초로 통돌이 세탁기로 알려진 전자동 세탁기, LG 트롬 트윈워시, LG 트롬 워시타워까지, 혁신을 거듭해 왔다. LG전자는 세탁기를 단지 빨래하는 기계로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 나아가 세탁물의 종류나 오염도에 따라 알아서 세탁할 수 있도록 트롬 세탁기에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안전 과학회사인 UL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딥러닝을 이용해 의류 재질을 인식한 후 LG전자만의 손빨래 동작을 본뜬 6모션 중 최적 모션으로 맞춤 세탁이 가능하다.

자동세제함으로 세제 투입 고민 끝!

또한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세탁기에는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 등을 감지해 적정량의 세제를 알아서 투입해주는 자동세제함 기능을 적용했다. '자동세제함'에 액체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미리 채워

두면, 세탁 코스와 세탁량에 맞게 자동으로 투입해 주는 기능이다. 잔여세제를 씻어내는 자동 워터 스프레이를 갖췄고 세제량 센서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차별화된 업그레이드 LG UP가전 세탁기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세탁기는 LG UP가전 라인업으로 LG 씽큐 (LG ThinQ) 앱의 'UP가전 센터'에서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로 추가해 늘 새것처럼 제품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70% 줄여주는 새로운 코스를 'UP가전 센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가 세탁할 때 손상되는 합성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케어' 코스는 트롬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6모션으로 옷감의 마찰을 줄여 합성섬유 손상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것을 표준코스 대비 70%, 에너지 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다. UP가전 고객이라면 누구나 LG 씽큐(LG ThinQ) 앱의 'UP가전 센터'를 통해 신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INTERVIEW



조 주완 LG전자(주) CEO

'LG 트롬'이 2010년 이후 14년 연속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로 차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LG 트롬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가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사용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있고,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객 가치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